



젊은 남편 젊은 아빠 ② 상하의 새해

교/육/계/획

정인택/소설가

상하는 나와 아내의 첫번째 작품이다(아내는 마지막 작품 이기를 바라지만). 이제 21개월째 접어든 딸이다. 아이를 키우기로는 나보다 선배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미운 세살이 되었다. 나는 요즘 남들이 얘기하는 미운 세살이라는 말의 깊고 깊은 의미를 실감하고 있다. 세상 모두를 준다 해도 결코 바꿀 수 없는 그놈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상하가 제법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했다. 말귀를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이 자기에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희한하게 구별해 낸다. 내가 잠깐 나가더라도 그놈은 내가 자기의 까까를 사러 가는 지 다른 약속이 있어 가는 지를 제부모의 대화를 듣고 귀신같이 알아차린다. 상하가 잠들지 않은 시간에 불일을 보려면 그놈의 양탈을 부모 중의 한사람이 감당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 정도는 부모된 도리로서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 상하가 미운 건 다른 데 있다. 그놈이 이제 흥내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집에는 흥내를 낼 다른 사람이 없으니 부모의 흥내를 낸다. 그게 더 없이 밍다.

“카!”

컵으로 물을 마시면 상하는



여지없이 감탄사를 터뜨린다. 그러면 아내는 나에게 면박을 준다. 아이 앞에서 오죽 술을 마셨으면 저러겠냐고 한다. 한번은 아내가 친정집을 다녀왔는데 창피해 죽겠다고 했다. 이유인즉슨 식사를 하는데 연방 카! 카!를 하더라는 것이다.

“술꾼 신랑에 술꾼 딸내미를 뒤서 얼마나 행복하냐.”

친정식구들은 농담으로 한마디씩을 했지만 아내는 그게 아니었다. 내심으로 정말 심각함을 느낀 것이다. 그날 나는 똥통 당했다. 최소한 아이 앞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아내는 다그쳤다. 난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아이를 보는 시간이 많고, 시도때도 없이 집으로 찾아오는 친구들을 접대해야 하는 나로서는 선뜻 그러마 할 수 없었다. 내가 아내에게 약속할 수 있었던 말은 이런

정도였다.

“앞으로 술마시면서 절대로 카!라고 하지 않겠음. 다른 사람들에게도 철저히 주의시키겠음.”

그 말에 대한 아내의 반응은 적지 않았다. 한심하게 쳐다보는 아내 눈길의 묘함을 독자들이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아마 충분할 것이다. 상하는 그렇게 나를 궁지에 빠뜨리는 못된 놈이다.

“세살이 되었으니 교육계획을 세워야지. 지금처럼 무작정 키울 수 없잖아.”

새해설계의 한 부분으로 아내가 말했다.

“벌써 학원에 보내?”

“무식하긴. 유아교육을 하자니까 고작 학원밖에 생각 못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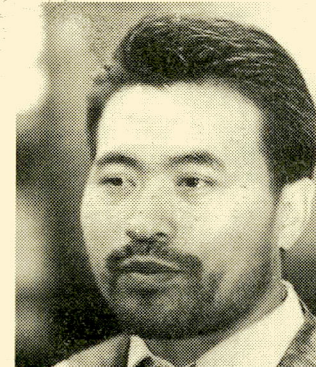
전성으로 받아넘겼던 나는 아내가 이미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호기심이 생겼다. ‘아직 똥오줌도 못 가리는 어린애를 데리고 무슨 교육을 시키겠다고.’ 나는 아내가 꿰어오르는 교육열을 못 이겨 황당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려하면서 아내의 다음말에 귀를 기울였다. 상하는 방구석에서 장난감을 만지며 놀고 있다.

“벽에는 낙서판을 붙여 놓고, 장난감도 지능개발용으로



진짜 아름다운 여자의 마음

박 준/헤어디자이너



여성에 둘러싸여 있는 직업을 가진 타인지 사람들은 내가 여성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으리라 기대한다. 집안에서도 직장에서도 내 주위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더구나 헤어쇼나 패션쇼를 위해 해외출장을 가서는 세계적으로 이름난 모델이며 스타들을 대하게 되니 아름다움의 가치를 외모에서 따진다면 나는 미를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진짜 아름답다고 느끼게 되는 여성은 따로 있다. 그런 여성들을 만났던 몇가지 기억이 있다. 내가 미용실을 연지 얼마 안되면서부터 단골 손님이었던 올해 칠순이 넘은 할머니 한 분은 특히 기억이 난다. 5, 6년 전에 자식들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셨던 그 분은 고향을 잊지 못하고 자주 한국을 방문하셨고 그때마다 나를 찾아 오셨다.

언제나 떠나기 전날 들려

바꿔야 해.”

“또?”

“일단 그것부터 해.”

“고작 그거야?”

“고작이라니. 애들한테 조그만 변화가 얼마나 큰 줄 알

“박 원장, 이번이 마지막이 될지 모르니 최고로 멋있게 해줘요”라며 머리를 맡겼다. 늘 젊게 아름답게 해달라고 요구하던 그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다녀가신 지 2년이 넘었다. 2년 전에 오셨을 때 몸이 자꾸 쇠약해져서 한국에도 자주 나오지 못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셨는지 정말 궁금하다. 여전히 “젊고 예쁘게”를 요구하고 계시는지…….

또 한 아가씨가 오랜만에 상경한 어머니와 미용실을 찾았다. 전라도 사투리로 구성지게 오고가는 모녀의 대화를 듣자 하니 어머니를 모셔온 아가씨는 결혼을 안해 속 썩

이는 노처녀였지만 오랜만에 온 어머니인 만큼 장안에서 가장 유명한 미용실에서 머리를 해 주겠다며 모셔온 것이었다.

두 사람을 보면서 농촌에서 살던 어린 시절과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한동안 정겹기만 했다. 우리 어머니가 다 생각하고 미장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마사지, 화장, 머리까지 무료로 해주었다. 돈을 지불하겠다는 그들을 떠밀다시피 보내고 그날을 기념하는 사진을 찍겠다는 그들을 상상해 봤다. 아마 모녀의 정이 듬뿍 담겨 있고 가장 행복한 미소를 머금었을 것이다.

여성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여성 속에 파묻혀 산다는 말을 수 없이 들어왔지만 그런 여성들을 만날 때마다 여성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내 직업이 여성의 외적인 아름다움과 함께 숨겨진 내적인 아름다움까지 함께 꾸미는 일이라는 자부심도 갖게 된다.

아?”

나는 다시금 상하를 바라보았다. 새삼스레 불쾌을 듣고 놀기 좋아하는 그놈이 달라 보였다. 나는 언제나 그런 식이다. 육아에 있어서는 아내

의 말을 들어야 다른 계획이 생긴다. 이제 고난도의 놀이에 흥미를 느껴 갈 상하. 나는 그놈이 새로운 놀이에 젖어 컵을 들고 카! 카! 하는 버릇을 그만 잊기만을 바란다.